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옴마니반메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2년 7월 1일 월요일 제36호

이 달의 종조법설
글을 읽지 않는 것은 말의 매가 되고 부지런하지 않은 것은 집의 매가 된다. 꾸미지 않으면 몸의 매가 되고 방만한 것은 일의 매가 된다.

발행인: 해암 편집주간: 원송 편집인: 황의수 인쇄인: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02)552-1081

청소년 여름수련 법회 준비 한창

불교총지종, 어른에게 공경을, 청소년에게 기상을...



2001년도 청소년 수련법회에서 연꽃 등을 소중히 만들고 있는 청소년들

청소년 여름 수련법회가 오는 7월31일부터 8월2일 2박3일간 지리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이번 수련대회는 예년과 달리 문화유적답사 위주의 수련활동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에 대한 체험과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한다. 극기훈련, 담력훈련, 관찰 탐구활동과 협동과 봉사 등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바탕으로 전통적 가치관 확립과 바른 인격형성 그리고 불교적 인간관을 확립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문화프로그램으로써 합천 해인사, 내원사, 구례 화엄사 등 유서깊은 사찰과 문익점 목화 시배지, 광재우 사당, 성철스님 생가 등이 인접해 있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수련회 첫째날 공동체 주체활동으로 팀워크활동과 팀구성을 하고 야간산행훈련을 통해 자명훈련과 잠행프로그램, 담력훈련을 하고 둘째날 산악 POST훈련과 배움터교실을 열어 총지종의 정체성 찾기와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며 수영과 레프팅의 시간을 가져 교육과 즐거움의 시간을 조합시켰다. 저녁에는 총지종 청소년 대축제의 밤 프로그램에서 조별 장기자랑, 불꽃놀이 캠프파이어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세계날 미니올림픽 프로그램으로 공동체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집단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다.

수련회 준비책임자에 의하면 "과거 피산수련회는 국립공원유지자로 묶여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불교총지종 고유의 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 극기훈련 담력훈련으로 재미와 공부가 병행되는 수련회가 될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8월중에는 2년마다 전국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회를 보는 경로법회가 예정되어 있다.

종단의 어르신 한자리에 宗政자문회의 발족 ... 연 4회 정기모임

지난 6월12일 오후 2시 통리원 종령실에서 특정 종령은 기로스승 7명을 宗政자문위원회에 위촉되었다. 법정화, 총지화, 경관, 원봉, 수성, 해산, 효강 7명은 특정 종령으로부터 宗政자문위원회에 위촉장을 받았다.

종법상 宗政자문위원회는 종정운영상 중요사안 및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종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특정 종령은 "종단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종령이 재단이사를 겸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러 원로 스승님은 종령님이



특정 종령으로부터 宗政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받고 있는 법정화 스승님

특정 종령은 이날 자문위원회를 위촉하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종단의 원로 선배로서 종단 발전에 누구보다도 관심과 애정이 있습니다. 종단운영에 잘못과 잘함 그리고 반성할 점과 계승하여야 할 점에 대한 원로 선배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어 해암 통리원장의 종단 운영보고에서 "현재 종단의 큰 사업으로써 광주 및 전주 사원 신축과 양계 만다라 조성을 하고 있으며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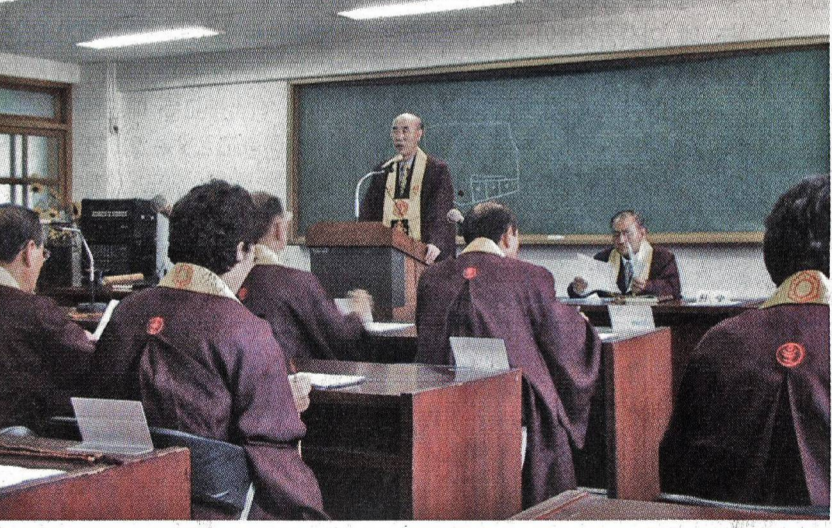
종단의 세세한 지출현황까지 결제를 받는다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을 수 있다. 통리원장은 종령에게 종단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보고를 해서 종단운영의 지문을 받고 집행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으며 회향하였다. 宗政자문위원들은 종생교화와 총지종단 발전을 위해서 원로스승이 모여 종단발전안과 교화방편에 대한 의견과 모범을 보이기로 하였다. 원로회의의 격인 宗政자문위원회는 년 4회(2월, 5월, 8월, 11월) 정기적인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76회 임시 중앙총의회 개최

종립학교 동해중 학교부지 추가 매입 결정

제76회 임시 중앙총의회가 지난 6월 25일(본원) 통리원에서 열렸다. 중앙총의원 17명중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임시 중앙총의회에서 의강(삼밀사 주교) 중앙총의회 의장은 "종단의 화합으로 종단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중앙총의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사말씀에 이어 해암 통리원장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시는 여러 총의원들에게 감사하며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전에 대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 하였다. 이날 상정된 안전 중 종립학교 동해중의 시설확장을 위해 부근 대지 매입과 건물 신축에 대하여 강경중 동해중학교 교장은 "학교의 시설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다행히 학교바로 옆 건물이나 대지를 매입해서 교실수를 늘리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설명을 하였다.

이에 중앙총의회 의원들은 부지매입에 따른 비용 3억6천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유지재단 임원에 해암 통리원장, 법정 화음사 주교, 수증원 혜정사 주교, 지성 정혜서원당 주교를 유임하



의강 중앙총의회 의장이 중앙총의원들에게 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였고, 사회복지재단 임원에 법공 성화사 주교, 원송 밀인사 주교, 연동원 지인사 주교, 선도원 실지사 주교를 유임하여 유지재단 및 사회복지재단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종단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동포 돕기 지원금의 안전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이어 열린 전당건설위원회에서 광주 법황사와 전주 흥국사 신축사원에 대한 보고와 전주 흥국사 설계 변경을하기로 결정하였다.

공명정대하고 부드러움으로, 온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



부처님 자비가 온 세상에 두루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제12회 청소년 수련법회가 우리의 꿈을 이루는 텃밭이 될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인공이 됩시다.

제12회 청소년 수련 법회 일정

- 일 자 : 2002. 7. 31 ~ 8. 2
- 대 상 : 청소년 중·고생
- 장 소 : 지리산 청소년 수련원 (경남 산청군 단성면 창촌리)
- 학생준비물 : 수영복, 체육복, 세면도구
- 참가비 : 1인당 2만원
- 입소식 : 2002. 7. 31(14:00)
- 퇴소식 : 2002. 8. 2(11:30)

시간	제1일자	제2일자	제3일자
07:00		기 상	기 상
07:30~08:00		아침법회	아침법회
08:00~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11:30		산악POST훈련 (극기훈련)	미니올림픽 (팀대항전, 팀보, 기약전등)
11:30~12:00			퇴 소 식
12:00~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15:00	수련장도착, 입소식		
15:00~17:00	오리엔테이션	배움교실 (레크댄스와 수영)	귀 향
17:00~18:00	저녁법회		
18:00~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22:00	야간산행훈련 (담력훈련)	축제의밤	
22:00~23:00	일과정리 및 취침	일과정리 및 취침	

죽비소리

이타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동기의 차이가 수행자들의 수행에 성공과 실패라는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보살은 모든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돕기 위해서 자진해서 윤회속에 남겠다는 서원을 세운 존재이다. 그 훌륭한 보살이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중생을 범부가 우습게 본다면 얼마나 주체님은 일이겠는가? 출가자는 재가자들 반복에 지든 중생이긴 마찬가지다. 보살은 그런 모든 중생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도우려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출가자는 재가자들 모두가 보살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자식들을 인식하고, 서로 돕는 형제들의 마음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주민환 교수 글중에서)

사설

월드컵과 진호국가불사

지난 6월은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감격을 주었던 한달이었다. 가슴 벅찬 환희와 깊은 열정들이 식지 않고 아직도 솟구치고 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나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였을 때 누구라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헤쳐나갔던 민족이었기에 월드컵 축구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투지와 정신력, 국민들의 질서의식은 그래서 더더욱 대견스럽고 감격스럽다.

서울올림픽때의 선진시민의식이나 외환위기때의 금모으기 운동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애국심요 희생정신의 발현이다. 온 국민의 하나된 모습은 어떤 설명이나 어떤 분석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태극기'와 '대한민국'이 온 국토에 매아리 친 한달. 우리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과 투지, 의식높은 응원자세, 그 모두가 나무랄 데 없었던 한달이었다. 정신적인 면에서나 육체적인 면에서 너무나 건 강하고 힘이 솟는 건강한 사회였다. 그야말로 국운운성의 서광을 보는 듯했다.

이제 월드컵은 끝났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월드컵 때 보여 준 열정과 질서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일이다. 열광과 감동을 우리 사회 전반에 재생산시키는 일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스스로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

쉽게 포기했던 마음은 불굴의 정신으로, 남을 미워했던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만을 생각했던 이기심은 공동체이식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탈진 지경에 이르면서도 몸을 사리지 않았던 선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흥분과 기쁨을 선사했던 그들에게 감사의 보답을 보낼 수 있는 길은 그들의 정신을 본받아 생활 해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선수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작은 보답이요 대한민국 국민의 또다른 의무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에서 그 정신을 이어가자.

우리 진언행자에게는 이번 월드컵이 또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월드컵기간 우리 종단에서는 중요한 불사가 계속 되고 있었다. 하반기 진호국가불사가 지난 5월 28일부터 시작되어 7월 15일 회향을 앞두고 있다. 진호국가불사 기간 동안 벌어진 월드컵은 우리 진언행자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해마다 진호국가불사가 봉행되면 불사 기간 동안 나라와 우리 주변에는 호국안민과 관련한 일련의 국가 중대사가 일어났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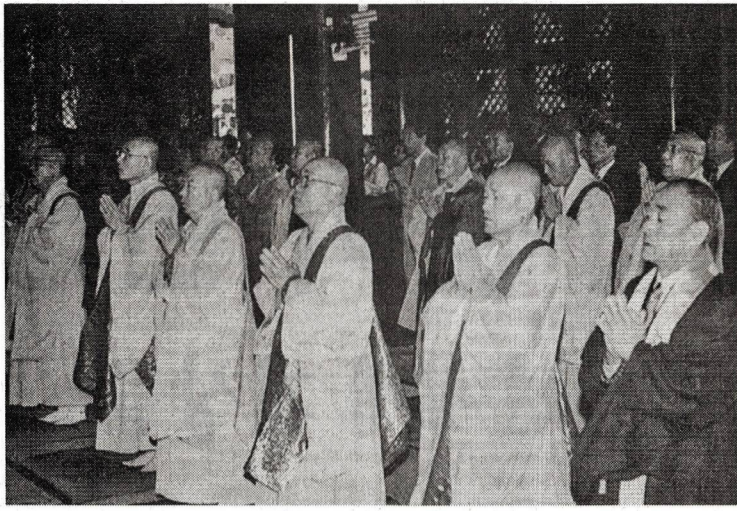
이번 월드컵 기간이 하반기 진호국가불사와 겹쳐져 수호국계주진언을 더욱 지극하게 염송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어느 때보다 진호국가불사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었던 불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번 월드컵과 하반기 진호국가불사는 우리 진언행자들에게 참보살로 태어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동글고 따듯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승화시키자.

社 告

대표전화 : (02) 552-1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발행인 : 해안 종사 편집장 : 원승 대정사 안쇄인 : 김준배
 창간 : 총기 24년(1995년) 10월 16일/1995년 8월 29일
 등록번호 : 마-2380호
 서울 경인교구청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45 (02) 889-0211
 충청 전라교구청 : 광주시 남구 구동 29-18 (062) 676-0744
 대구 경북교구청 : 대구시 동구 효목2동 443-3 (053) 743-9812
 부산 경남교구청 : 부산시 진구 당감2동 64-5 (051) 896-1578
 종립 동해중학교 : 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8-25 (051) 555-4457
 금강승지수련원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산 13 (043) 833-0399
 사회복지재단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 3452-7485
 구독신청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총지중보편집실 (02)552-1083

6·15공동선언 계승 평화통일 발원

남북공동선언 2돌 기념 조국통일 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개최



남북 불교계는 '6·15공동선언 2돌 기념 조국통일 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6월 14일 오전 11시 남과 북의 사찰에서 동시에 봉행되었다. 이번 남북공동법회는 지난 4월말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 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 대한 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연스님, 부산 내원정사 주지) 주관으로 열린 조국통일 기원 남북공동법회는 통일을 기원하는 헌화, 개회사(민후본 정연스님), 봉행사(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위원장 인사말(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대독), 남북공동발원문(종단협 사무총장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원택스님이 대독한 봉행사를 통해 "남북 정상들의 6·15 공동선언은 남북의 대결을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을 나아가는 이정표였으며, 통일조국의 미래를 여는 희망을 안겨주었다"며 "남과 북의 불교도들은 대승불교의 원용과 화쟁사상의 실천을 통해 남과 북의 이질성 회복을 통한 진정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노력을 하자"고 하였다.

남과 북의 불교도들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불자들이 앞장서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실천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발원하고, 또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힘으로 평화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원했다. 조선 불교도 연맹 박태화 위원장은 종단협으로 보내온 남북 사부대중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에서 "통일의 길이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우리 겨레 모두 6·15선언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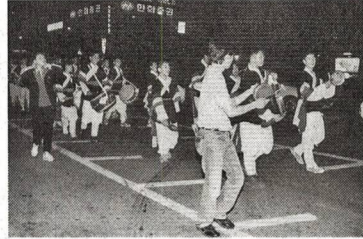
교구소식

태림불교공예원 이남형대표에게 감사패 전달



지난 6월 9일 총지사 신정희(회장 김은숙보살)는 총지사 본존불단봉(불사에 최선을 다해준 태림불교공예원 이남형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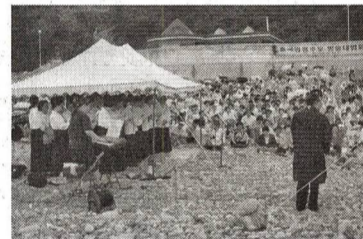
동해중 풍물패 전국대회 장원



한국예총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지부가 주관한 "제16회 부산예술제 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에서 종립학교 동해중학교 풍물패가 장원상(부산 시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14일~15일 양일간 부산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국악경연대회에서 동해중학교 풍물패는 "모듬북 공연"으로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결과를 낳았다. 국악 경연대회에서 "모듬북공연"을 펼친 안재홍, 김의열, 최수원, 박찬세, 이경학, 최정훈, 김장일, 이승재, 조성준, 김성운, 최원석, 박승민, 심영락, 임관영, 김현아 등 15명은 하나된 마음과 조화로운 북 울림으로 많은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각 교구별 우란분절 맞아 방생법회 봉행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하는, 오는 7월 15일 우란분절을 맞이하여 각 교구별로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방생법회는 과거와 같이 물고기나 조류의 방생을 하는 전통방식을 지양하고 인간방생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은 합동 방생법회로 1000여명의 교도들이 참여하여 경북 청송에서 문화체험과 방생의 의미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 외국인에게 큰호응

절반의 성공, 상실적 체험 프로그램 개발 필요



한국인에게 사찰체험을 제공,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기획했던 이 사업이 '상실'로 가득 찼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보부족, 조계종이 중저가 숙박예약 시스템인 '월드인'을 통해 예약을 받고 안내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는 등 열을 올렸으나 예산배정 시점이 늦었던 탓에 홍보기간이 크게 부족하여 외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40일간 템플 스테이를 체험한 총 외국인 숫자는 900명선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순이며, 사찰별로는 전등사, 약천사, 송광사, 통도사, 해인사, 무각사 등 순이었다. 황찬의 과장은 '템플 스테이 준비에 투입된 돈과 인력(자원봉사자 186명) 등에 비하면 외국인 참가자가 적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찰을 체험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많은

은 참가자들이 설문조사, 소감문 등에서 '다시 찾겠다'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답했다. 미국인 채식주의자인 캘리 마틴(여)씨는 '오는 10월과 내년 4월에 또 다시 방한해 템플 스테이에 참여할 것'이라며 월드컵 이후에도 템플 스테이의 유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경북 김천 직지사에서의 주한 외교사절단 체험, 송광사에서 프랑스 문인협회회원 체험, 내소사에서 영국 블레이크리 총리 공보비서관 체험 등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왔다. 미국 CNN은 '템플 스테이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뉴스위크는 '한국의 불교를 맛볼 수 있는

종단협, 종단난립 실태조사

무자격 종단 폐해 파악 목적

종단협의회는 지난 6월18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무자격 종단난립으로 인한 불교의 공신력 저하 현상을 이대로 방관하고 있을수 없다"는 데 이사회종단들이 공감, 실태파악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단협은 따라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종교단체 가운데 불교종단을 파악하는 한편 각 시·군의 협조를 받아 정확한 종단 수를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 종단협의회는 파악으로는 종단협 소속종단 26개종단 이외에 약 100여곳이 불교종단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들의 규모나 신행행위로 보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특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조계'자를 사용하는 곳만 해도 12개에 이를 정도로 그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후원회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관성사</p> <p>이 위계순화순인정조정김이이박백박이박최박황</p>	<p>밀인사</p> <p>안옥진진자우선태속임회분자환배순수원진자식성회의우회</p>	<p>실지사</p> <p>황석순황성대근도장근복산김복우섭순전일월정경선김송이최최영기정정주오성</p>	<p>흥국사</p> <p>김현숙강일신</p> <p>총지사</p> <p>이정복숙성자김순자</p> <p>정심사</p> <p>박옥란</p>	<p>후원회 가입안내</p> <p>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p> <p>회원</p> <p>일반회원 - 월5천원(1구좌) 이상 찬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단체회원 - 단체명으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p> <p>후원금 납부방법</p> <p>1. 단체인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한빛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p>
---	---	--	---	--

우리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지상설법

밀교(密敎)의 삼륜신(三輪身) 법문(法門)에 대하여

게으름은 온갖 악의 근본이요, 게으르지 않음은 온갖 선의 근원이다



<지인사 연동원 전수>

우주(宇宙)와 인생(人生)의 신비(神祕)는 불교의 육도(六道) 윤회(輪廻)를 통해서 인과법칙(因果法則)을 풀지 않으면 해답(解答)이 없습니다.

부처님을 믿고 밀교(密敎)에 수행(修行)을 하는 불자들에게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불공(佛供)을 칠일불공(七日佛供), 사십구일불공(四十九日佛供), 평생불공(平生佛供)을 합니다.

이러한 불공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魔障)이라고도 하고 또는 법문(法門)이라고도 합니다.

밀교에서는 이런 법을 당체법(當體法)으로 법(法)을 봅니다.

그래서 지혜(智慧)가 밝은 사람을 법문(法門)이라고 하고, 지혜(智慧)가 어두운 사람은 마장(魔障)이라고 합니다.



참회(懺悔)하고 타고난 업(業)을 바꾸고 과거로부터 훈습(薰習)된 습(習)을 바꾸는 것이 불공이다

을 받습니다.

첫 번째 수행법(修行法)에서 자성륜신(自性輪身)이라 해서 처음 우리는 부처자리에 들게 합니다.

삼밀관행법(三密觀行法)에 몸과 입과 뜻으로서 몸은 부처의 몸이고, 입으로는 염송(念誦)을 하고, 뜻으로는 선정(禪定)으로서 부처님과 가지(加持)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설정해 놓고 부처와 나를 통해서 - 즉 자내증(自內證)이라 내 마음을 한곳에 놓고 부처님과 상응해서 과거의 잘못을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참회(懺悔)의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정법륜신(正法輪身)이라 해서 보살위입니다.

이 삼라만상(森羅萬象)을 모두가 법신(法身)의 상으로 자연 그대로 낱알이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도 못 고치면 부처님은 다시 세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다시 명왕(明王)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교령륜신(敎令輪身)이 발동해서 우리를 중생에게 매를 치고 들어옵니다.

롭게 하고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죄 또는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가지가지 지는 죄를 이러한 죄업을 낱알이 내 몸으로 과보(果報)를 받으므로써 내 몸 아파하고 병들게 하고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이 인과법칙(因果法則)에 의해서 오는 것을 증득(證得)해 봐야 해탈(解脫)을 한다.

불공(佛供)은 자주함으로 한 겹씩 한 겹씩 벗겨감에 인격(人格)이 완성(完成)

되고 금생(今生)에 사람의 몸으로 있을 때에 좋은 습성(習性)으로 바뀌어야 윤회(輪廻)를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도 모르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가?

모든 것이 배움도 수행도 때가 있는 법 어느 세월에 닦을가?

부처님 말씀중 유교경(遺敎經)에 나오는 수행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정리하고자 합니다.

만약 부지런히 정진(精進)하면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니, 마치 작은 물도 끊임없이 흐르면 능히 돌을 뚫는 것과 같아서, 끝없는 정진 앞에는 못 이룰 일이 없는 것이다.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고 불

생활속의 밀교

삼금강(三金剛)을 이루자

신구의(身口意) 삼밀을 (대일경)과 (금강정경)에서는 삼금강(三金剛)이라고도 한다.

또 '금강'은 신구의(身口意)의 삼밀(三密) 이외에도 '가지신(加持身)이

마음으로 표현된다. "모든 중생의 마음은 견고한 보리로서 살타라 이름하며, 마음은 부동(不動)의 삼마지에 머물러 정근결정(精勤決定)되므로 '금강(金剛)'이라 한다"

'金剛'은 身口意의 三密 加持身の 智慧

갖추고 계신 지혜'를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에 이르기를, '이 지(智)에는 제법(諸法)의 실상(實相)을 비추는 능력이 있으나 그 실상(實相)이 어떠한 것인가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고, 마음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으며, 모든 죄과를 떠나 변하여 바뀔이 없고, 또 깨뜨려 버릴 수 없는 것이므로 금강이라 비유한다'

이 금강의 삼밀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무엇 일가, 몸으로는 절제된 생활, 지계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요, 입으로는 쓸데없는 말, 남

을 속이는 말, 이간양설, 추악한 말을 담지 않는 것이며, 마음과 생각에서는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을 지니는 것이다.

금강과 같은 입(口)으로 정진할 일이다. 망어를 해서는 안된다. 기어도 하지 말고 양심은 더욱 멀어 악구 또한 멀리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만큼 보이고 느끼다



비로자나 부처님(毘盧遮那佛)은 달리 비로사나불(毘盧舍那佛)이라고도 쓰고 줄여서 노사나불(盧舍那佛) 또는 자나불(遮那佛)이라고도 하는데, 비로자나란 인도의 옛말 바이로차나를 소리나는대로 옮긴 것으로 본래는 태양을 의미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뜻으로 옮길 때는 변일체처(遍一切處) 또는 광명변조(光明遍照)라고 하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떤 분이며 어떻게 모셔야 하나?

이와 같이 여러가지 이름을 지니고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엄경)과 밀교 경전들의 교주인 법신불(法身佛)로서, 말하자면 우주와 인생에 깃들어 있는 영원무변하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본체로 하는 부처님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이름을 지니고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엄경)과 밀교 경전들의 교주인 법신불(法身佛)로서, 말하자면 우주와 인생에 깃들어 있는 영원무변하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본체로 하는 부처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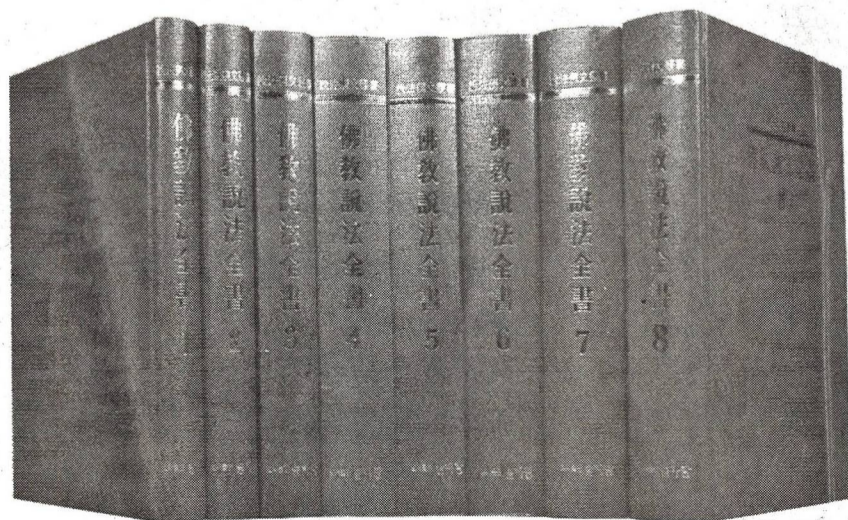
서 모시는 부처님으로, 부처님들의 본질인 진리 그 자체를 인격화해서 모시는 부처님으로, 온 우주에 두루 충만해 있고 이 세상 모든 것 안에 내재해 있어 다른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세상 만물이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현입니다.

이와 같은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한 해석은 예로부터 불교계 내부에서 대단히 구구하여 일지된 견해가 없었습니다.

형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사찰에서 모시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불상은 흔히 지권인(智券印)이라고 해서 오른손으로 왼손의 집게 손가락을 말아쥐 손모양을 하고 계십니다.

불교설법전서 8권 발간!

지난 14년 동안 스님들과 포교사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바로 그 책, 불교설법전서!



- 4x6배판
1권(500쪽) 3만원
2권(593쪽) 4만원
3권(610쪽) 4만원
4권(796쪽) 4만원
5권(718쪽) 4만원
6권(800쪽) 5만원
7권(900쪽) 5만원
8권(790쪽) 5만원

창립14주년 기념 특별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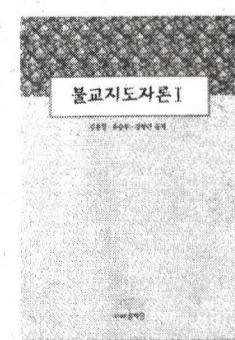
법보신문 · 도서출판 솔바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403호
Tel. (02)720-0824 Fax (02)722-8760
E-mail: sulpub@hananet.net

행사 · 교리 · 불사 · 수행 · 시사 등 주제별로 구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교지도자의 역할과 그 수행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지침서

스님, 재가법사, 포교사 및 각급 신행단체 간부님들의 필독서!

불교지도자론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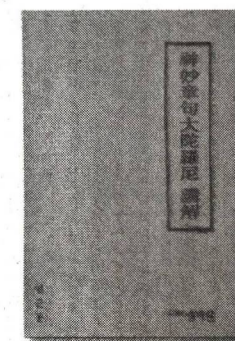


김용철 · 유승무 · 김영란 공저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불교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을 키우도록 하는 지침서.
국재신문 이용근 기자
이상적 불교지도자상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 최초의 체계적 연구서.
현대불교 여성영 기자
한국불교의 지도자상과 지도력 배양을 논한 최초의 책.
만불신문 신혁진 기자
이 책은 불교리더십의 이론을 제공하면서, 포교현장의 지도자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있다.
불교이카데미 윤천수 이사장

신국판 456쪽 값 20,000원

불자들이 수지 독송해온 신묘장구대다라니, 생명의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



저자 임근동 (한국외대 인도어과 강사)

임근동 선생님이 우리말로 풀이하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위우고 싶노라하면, 아릅다운 미소를 머금으신 관세음보살님이 고난에 찌든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시는 듯한 느낌이 든다.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본각 스님
저자는 "산스크리트어로 지은 진언을 우리말로 옮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불립문자"라는 말대로 문자 위에 서는 것을 경계해야 할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조연희 기자

신국판 208쪽 값 10,000원

신묘장구대다라니 강해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중생의 슬픈 고난을 구제하시다

중생을 구제 하고자 하시는 관음보살의 응현하는 모습은 경전에 따라 다르다.

<능엄경>은 32응신설을 채택하고 있으며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33응신설과 보문시현하고 <다라니집경>에 의하면 관음은 대자, 대비, 사지무의, 대광보조, 천인장부, 대법심원의 6관음으로 나타나며 밀교에서는 성·천수천안·마두·십일면·여의륜·준지·불공경색의 7관음설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11면이라는 것은 관음보살의 두부(頭部) 11면을 말한다. 즉 두부의 전면에 있는 3면의 자상(慈相)과 좌측의 진상(眞相) 3면, 우측의 백아상출상 3면, 후면의 폭대소상 1면, 정상의 불면 1면을 합한 것이다.

이 각각의 모습에는 모두 중생구제의 깊은 뜻이 깃들여 있다. 본 얼굴은 침묵 속에서 비밀스럽게 교화하는 의미가 있고, 11면은 가지가지의 방편으로 가지가지의 설법을 하는 의미가 있다.

■전면 3면의 자상은 선한 중생을 보고 자심을 일으켜 이를 찬양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음은 언제 어디서나 선한 중생이 그의 화도하심을 보고자할 때는 자상을 나타내어 설법하신다. 자상은 진실된 지혜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진실면을 나타낸 것이며 선을 찬탄하는 것이므로 격려하여 교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상에는 왜 3면이 있는가를 보면



2. 적정한 이치를 구하려 하건만 도리어 산란한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자를 보고 분노하는 것이다.

진상은 악을 조복하게 하는 것이므로 항복받아 교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기를 들고 위협하면서 악을 가책하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 결국은 악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측 3면 백아상출상은 정업을 찬양하는 것을 상징한다.

정업을 행하고 있는 자를 보고는 더욱 불도에 정진하기를 권장하는 모습이다. 그 누가 중생을 제도하고 정업을 바라는 자가 있으면 관세음보살은 흰 치아를 드러내고 미소를 지으면서 모습을 나타내어 이를 찬양하고 더욱 정진하기를 권하는 것이다.

왜 세 개의 모습이 있는가? 그것은 몸으로도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그 삼업이 청정한 것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후면 폭대소상은 큰 소리를 내면서 웃는 모습이다. 착한 자 악한 자, 선악이 뒤섞여 있는 중생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을 모두 포섭하여 제도하기 위해서 관음 폭소를 한다. 이 웃음은 착하거나 악하거나 그 마음과 행위가 일정하지 못한 자에게까지 관음의 설법을 들을 수 있게끔 한다. 이 폭소면이 1면인 것은 선악이 뒤범벅된 중생들을 통틀어 비웃는 까닭에 1면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다. 폭소상은 악업을 비웃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폭소상은 등에서 사냥하고 물에서 고기를 잡는 등의 살생을 일삼는 무리들 틈에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결국은 그들을 올바른

중생이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고난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1. 고통만 있고 즐거움이 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그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도록 하려는 것

2. 다행히 복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복과 아울러 지혜를 다 갖추도록 하려는 것

3. 지혜는 있지만 통달하지 못한 중생으로 하여금 지혜와 아울러 신통력까지도 다 갖추게 하려는 것을 말한다.

■좌측 3면 진상은 악한 중생을 보고 비심을 일으켜 그를 고통에서 구하려함을 나타낸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성으로 발원하여 이러한 원력을 멀리하고자 한다면 관세음보살이 분노의 모습을 나타내어 이를 조복한다. 진상은 악을 가책하는 것이다. 진노상에 3면이 있는 이유는

1. 고통스러운 과보를 떠나려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낳는 행위에 빠져 있는 자를 보고 노하는 것

2. 즐거움의 과보를 얻고자 하지만 즐거움이 있게 하는 착한 원인을 지을 줄 모르는 자를 보고 노하는 것

길로 인도하게 해주는 것이다.

■정상의 불면은 대승근기를 가진 자들에 대해 불도의 구경을 설함을 나타낸다. 관세음보살은 불도를 구하고자 원하는 중생이 있으면 불신을 나타내어 설법하는 것이다.

진상과 백아상출상과 폭소상은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방편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1면은 본 면과 합하면 12면이 된다. 이 12면 중 11면은 방편 면이요 본 면은 진실 면이다. 방편 면이 신체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본 면은 지혜를 나타낸다.

즉 지혜를 바탕으로 하여 갖가지 재비의 행을 실현하는 보살이 11면 관음이다. 그러나 이 사바세계에는 선한 중생보다 악한 중생이 매우 많다. 그래서 관음은 먼저 분노의 모습을 나타내어 그들의 마음을 조복받고 선심을 이룩하게 한 다음 그들을 다시 자상으로써 교화하게 된다. 실로 관음의 중생제도에는 일정한 모습이 없고 혹은 1면만을 드러낼 때도 있는 것이다. (윤승호)

불교 에세이

애꿎은 소 떼까지 죽일 필요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친구들이나 동료들끼리 지내다 보면 누구나 한 두 번 좁은 다름 일이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정당함을 옹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데 여념이 없게 일주입니다. 선거를 전후하여 쏟아져 나온 후보들간의 상호비방은 중생들의 그런 경향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지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실 지극한 성인이 아닌 다음에야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조

그만 잘못에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인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엇비슷하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는 분명히 다른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하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는 이가 '아, 이것이 나의 허물이구나!' 하고 안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알고 있다면 언제라도 그 허물을 고칠 수 있지만,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잘못된 행위를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말입니다.

물론 죄책감에 빠져 밝은 생활을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책감이나 반성의 마음은 바람직한 삶의 세계로 우리를 견제하는 멍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성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계속 안고만 있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많은 소를 기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 기르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하루, 소들 중 한 마리가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낙심한 나머지 그 사람은 나머지 소들마저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완전한 소 떼가 못된다고 찾기에 그랬던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누구나 그 사람을 비웃겠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 좌절하는 사람.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고 그 선생님의 과목은 거들떠도 안 보는 학생. 부모님에게 혼 좀 냈다고 집을 나가버리는 청소년 등등. 그런 사람은 저 소 떼를 죽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월드컵 경기 때 천금같은 페널티킥을 실패한 선수가 있었지요. 틀림없이 그는 전 국민의 한숨과 비난이

가슴을 짓눌러 오는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수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고, 더욱 열심히 뛰어들어 동점골을 멋지게 어시스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은 절망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활기차고 아름다운 내일, 다가올 시간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느끼는데서 출발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굶어앉은 채가 아니라, 불상 앞에서 108배를 반복함으로써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선한 행위로써 잘못을 뉘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행위가 반복되면 나쁜 인생을, 선한 행위가 반복되면 좋은 인생을, 그저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그저 그런 인생을 가지게 됩니다. 나쁜 인생에 빠져 있지 말고, 그저 그런 인생에 만족하지 말고, 좋은 인생의 주인이 됩시다. (순승현 법사)

반성 참회의 마음은

바른길로 인도하는 등불



정보 다이제스트

■속옷을 희게 세탁하려면

누렇게 된 흰 속옷을 다시 하얗게 만들고 싶으면 달걀껍질을 가체에 싸서 삶는 빨래 속에 넣으면 놀랍도록 하얗게 변한다. 또 한가지 방법은 겨울에 모아두었던 밀감껍질을 물에 넣고 끓여 이 속에 세탁한 무명빨래를 약 5분간 담가두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꺼내서 맑은 물에 헹구어 내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먼지 잔뜩 낀 조화 청소

천과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조화에 먼지가 잔뜩 끼었으나 이를 닦아내는 방법을 몰라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 조화를 물로 잘못 씻으면 변색되거나 상할 수가 있다. 변색과 흡착을 방지하면서 조화를 세척하려면 소금을 활용해 보자. 우선 비닐봉지에 소금을 한줌 넣은 다음 조화를 넣고 잘 흔들어주면 조화에 묻어있는 먼지가 소금에 묻어나 깨끗해진 다. 그런 다음 물로 헹구 주면 된다.

■살갗에 묻은 페인트 지우는 법

손이나 얼굴에 폴드크림을 바르고 나서 페인트칠을 하면 페인트가 묻는다 하더라도 휴지로 닦아내면 금방 지워진다. 그런데 민일 폴드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페인트칠을 하다가 페인트가 묻었다면 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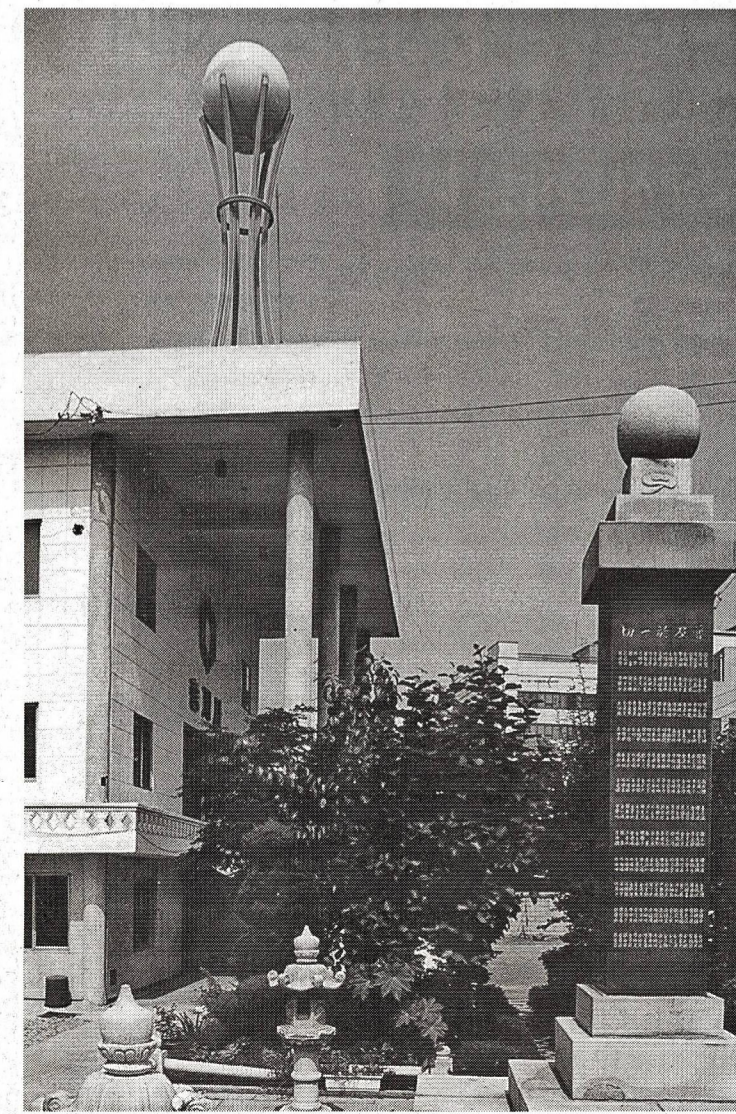
트가 묻은 곳에 버터를 발라 잘 문지른 다음 타월로 닦아내고 씻어내면 말끔히 닦인다.

■대문 혹은 벽에 상표 떼는법

"유리컵 상표는, 벽에 붙여둔 스티커헤어드라이어로 떼세요" 주부라면 누구나 그곳에 붙어 있는 정가표나 상표를 떼어내려고 솔로 문질러거나 더운 물로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아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잘못하면 새 그릇이 보기 싫게 되어버려 조심스럽기까지 한다.

이런 경우 신이나 아세톤으로 지우면 깨끗이 떨어진다.유리컵에 붙은 상표는 헤어드라이어로 10초 정도 뜨거운 공기를 쏘여주면 말끔하게 떼진다.

벽에 붙여둔 스티커도 헤어드라이어를 바람을 쏘여주면 된다.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일상 속에서 실천합니다.

여러분을 진언의 세계로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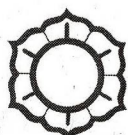
종령특정
통리원장혜암

중앙총회의 의장

총무부장 원송
재무부장 지성
교정부장 범등
사회부장 대원

중앙총회의 부의장 변공

서울경인교구장 환수원
충청전라교구장 범수원
대구경북교구장 우승
부산경남교구장 정정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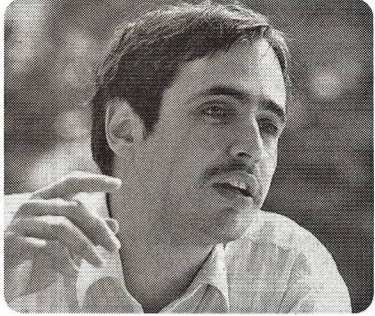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충지논단

사명대사 의거의 의의와 인간적 종교적 비극성

韓·中에서의 僧團과 國家的 暴力의 관계를 중심으로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박노자, 경희대)

본 자료는 박노자교수가 경희대 교직시에 작성했던 학술논문으로 불교 문화연구 17집에 실린 내용입니다. 2002년 6월 17일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있었던 초청 강연회 '호국불교와 폭력의 문화를 넘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를 묻는다'에서 강연보조자료로 쓰였습니다. 불교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불살생계에 대한 박노자 교수님의 입장을 읽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박노자 교수님의 학술논문을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1. 머리말 : 중국에서의 승려와 전쟁

원시 불교의 정치 사회 사상은 철저한 이분법론(二分法論)으로 집약된다. 즉, 출세간인 수행자 단체(승가)는 오로지 해탈과 일체 중생 제도(자리아타)를 이상으로 삼아 현실적 정치 사회 생활에 원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세간의 물질적 보시에 대한 보답으로 법보시(設法)를 행하여 사회의 순화와 정신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수행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들은 종식될 수 없었지만, 일단 승가는 전쟁에서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2. 삼국 통일 신라 고려 시대의 승려와 전쟁

중국의 한역 불교를 받아들인 고대 한국은 "승가에 의한 호국과 국왕에 의한 불교 의호"라는 종교적인 정교 관계의 패러다임을 수용 토착화 계승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나 귀족에 의한 "공적인" 살생(전쟁, 형벌, 사냥 등)에 대해서는, 고대 한국 승려들도 살법 등의 많은 방편을 동원하여 전란 시대의 잔혹한 풍토를 순화 평화하면서도 왕권 국가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까닭에 일단 불가피할 때의 최소한의 국가적 폭력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라를 비롯한 삼국의 왕권은 승려들의 불살생계를 보통 존중했었지만, 통일 신라 하대에 승려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진성여왕대(887-897)에 중앙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지방 호족과 초적(草賊; 농민 반란군)의 발호로 국가 질서가 유명무실해지자 토지 노비 소유자인土豪들은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되었다.

국가의 보호를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된 큰 사람들은 三寶 淨戒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防衛隊들을 편성해야만 하였는데, 이러한 사찰 방위대에 관한 자료로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것은 895년의 해인사 묘갈상감지(海印寺 妙吉祥塔誌)다.

이 자료에서 사상적으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法輪의 戒導로서 크게 버서 으뜸으로 삼는 것이 護國("...輪之戒道也 大較以護國爲先")이라고 표현되는 "호국 호법 일치론"이다.

신라의 호국 귀족 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고려 시대에는, 불교 교단에 대한 국가 통제는 개인 승려의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 태조 - 광종 시기에 완비된 승록사(僧錄司) 僧科 僧階 등의 국가 제도를 중심으로 크게 체계화 가중되었다.

승려들은 형법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엄격하게 국법 국가 관료 체제 아래 있었다. 그리고 승려들이 무조건 담당해야 할 消災 祈雨 祝壽 忌日追福 道場 등의 소위 "호국적 의례"의 부담은 커져 신라 불교도 지녔던 국가적 미신적 면들이 더

욱더 심화되었다. 그리고 고려 국가의 체질상으로 중앙 관료적 면들과 귀족적 면들이 혼합된 관계로, 각종의 귀족 세력의 후원을 받는 여러 종단들은 귀족 과별간의 투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문벌 귀족과 밀착하게 결합된 승가가 국가의 "정당"한 폭력(전쟁, 형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국가적 초비상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僧兵의 모집 참전은 가능하게 되었다.

13~14세기의 고려 승려들은 전쟁 형벌에 대한 불교적인 입장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삼국 통일신라 고려 승가는 불교의 불살생 정신 생명 존중 이념을 중시하여 이를 對사회적으로 널리 유포시키는 한편, 현실적으로 국가의 공인 의호

호국 이념은 승려의 직접적인 참전까지를 요구하지 않은 것 같다. 신라 교단사상의 의례적인 호국과, 혼란기 속의 사찰수위 방편으로서의 승병 편성은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

고려 시대에 교단에 대한 국가의 통제

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거의 시도를 펼치기도 하고, 사찰 중심의 수취 체제를 위협했던 지방 민란의 진압에 나서기도 하고, 몽고군과의 투쟁에서 많은 전공(戰功)을 세우기도 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정책의 예에서 보이듯

저버리는 국가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 이 세 가지 요소는 고등 도덕적 종교로서의 한국 불교의 궁극적인 퇴락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3. 사명 대사 의거의 비극성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통일 신라 고려 시대에 교단의 경제적 부(富)의 수호의 필요성, 국가와의 예측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서 승가의 불살생의 이상과 살생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사이에 괴리(乖離)가 생겼다.

조선조에 접어들어 승가의 사회적 위치가 획일적으로 격하되어, 역대 왕들의 對불교 태도에 상당한 차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승려들은 실제로 일반인과 같이 병역을 위시한 일체의 부역의 대상자가 된다.

국가로서는 일반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승병의 제공은 승가의 하나의 존재 이유였다. 승병은 이제 사찰의 예속민이 아닌 순수 승려로만 충당된다. 불살생의 이상은 이론적으로 남았지만, 승병의 제공만 승단의 생존의 길이었을 그 당시에는 이는 실현에 옮겨질 리는 만무하였다. 이상과 현실 간의 격차는 종교인으로서의 많은 고승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명당 유정(1544-1610)의 경우에도, 종교적인 불살생 정신과 현실적인 살생의 필요성은 적지 않은 내면적 갈등을 빚게 하였다.

원칙적으로, 유정 철학의 기본 이념은 생명 존중, 중생 제도에 있었고, 폭력에 대한 그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시(詩)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남의 아비를 죽이고 남의 형을 죽였으니 남도 또한 내 형을 죽였으리라
어찌하여 네에게 돌아오는 것은 생각치도 않고
남의 아비를 죽이고 남의 형을 죽였나?

왜곡된 호국불교를 바로잡아 부처님의 법을 세워야 한다

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제도적 합법적 폭력(전쟁, 형벌)에 대하여 타협적인 입장을 취하여 "호법 호국 일치론"을 들어 이를 합리화하였다.

나말의 혼란 속에서 거찰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와 노비 등의 경제적인 부(富)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중앙 정부와 무관하게 사찰들이 자체적으로 예속 농민과 승려와 구성된 방위대들을 편성하였다. 그 방위대들의 활동의 이론적인 뒷받침은 "정법 수호", "진호국가론" 등이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지역의 반란군의 진압은 주요 목적이었을 것이다.

나말 혼란기에 처음으로 사찰 단위로 편성된 승병(사찰 방위대)을 신라 불교 교단의 對사회적인 활동의 주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는 신라 불교의 호국적인 면모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신라 불교의 호국성은 주로 문두루 법회, 백고죄회 등과 같은 의례적 활동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당시 교단의

능력과 개별적 사찰 종단과 문벌 귀족의 밀착의 정도는 그 전 시대에 비해서 훨씬 향상되었다.

이와 함께 사찰 소유 토지의 면적과 예속 농민(수원승도)의 수로 대표되는 종단들의 경제적 부(富)도 크게 증강되고, 예속 농민에 대한 사찰의 수취 체제는 국가로부터 확고한 보장을 받기도 한다. 국가 경제 사회의 주요 요소가 된 사찰들이 국가의 주요 부담인 국방의 의무도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국가 지도층의 당연한 발상이었다.

결국, 나말 시대부터 있어 왔던 사찰 방위대들은 처음으로 국가에 의해서 "항마군"으로 집결 제도화된다(1104). 그리고 무신란으로 기존의 교단과 밀착했던 문벌 귀족들이 무너지고 지방민에 대한 사찰의 수취가 위협을 받게 되자, 사찰들은 그 시대의 상무적(尙武的) 분위기에 편승하여 신속히 무장하기 시작하였다.

사찰 단위로 편성된 승병들은 무신 지

이, 이 과정에서 승가는 무사적인 정신을 상당히 많이 익혀 적군에 대한 살상 행위를 "보살행"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고려말에 접어들어 승병의 참전은 당연지사라 받아들여졌고, 승병 징발權은 승가에 대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물론, 천책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이상(理想)의 차원에서는 승려들은 불살생을 중시했지만, 현실적 차원에서는 국가에 의한 폭력을 종교인으로서 공공연하게 인정해야만 하였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이러한 괴리(乖離)는 결국 교단의 도덕적 권위를 떨어뜨려 종교 단체로서의 승가의 정체성을 상당히 약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거시적으로 보면, 원시 불교의 무소유 정신을 짓밟는 교단의 치부(致富) 행각, 석가모니의 청정 승가의 이상에 전적으로 위반되는 정교 결합(政教 結合), 그리고 근본 오계 중에서도 으뜸되는 불살생계를

조선화원장의 충지 동의 보감

손발은 내장의 얼굴



사람의 생기는 팔다리에 제일 잘 나타난다. 우리의 손발은 나무로 치면 가지에 해당된다. 바람이 불면 가지가 먼저 흔들리듯이, 또 뿌리의 영양상태가 가지와 잎에 잘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내장의 활발한 정도가 손발에 잘 나타난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팔다리에 힘이 솟고 손발의 온도도 적당하다.

가령 좀 허약한 사람이 충격을 받든지 찬 음식을 먹어서 체하든지 하면 갑자기 얼굴이 노래지면서 팔다리

에 힘이 쭉 빠져 말도 나오지 않고, 일어서기는커녕 앉는 자리에서 한참 동안 꼼짝을 못하는 현상을 경험한다. 신체 각 부위가 긴밀한 연관을 갖는 하나의 유기체가기 때문이다.

내장 가운데서도 특히 위, 대/소장, 췌장의 상태가 손발바닥에 잘 나타난다. 그것은 이 장기들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뱃속이 더운 사람은 손

바닥에 열이 잘 나타나고, 속이 차가운 사람은 손바닥도 잘 차가워진다. 배는 더워도 탈 식어도 탈이다. 식었다는 것은 가능이 이미 약해져 있다는 것이고, 잘 더워진다는 것은 음식을 소화 흡수하는 일이 힘겨워 억지로 소화는 될 망정 열도 나고 땀도 나는 것이다.

그래서 손이 찬 사람은 대개 소화기능이 활발하지 않아 잘 체하든지 입맛이 없는 편이며, 손발이 더운 사람은 과식하는 습관이 있거나 술, 육류, 단 것, 찬 것을 즐겨 소화기관이 이제 약해지고 있는 중이다.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이 사람도 소화불량과 체력 저하를 조만간 경험하게 된다.

손바닥에 유난히 땀이 많은 사람은 땀이 손바닥 피

부에 나타났을 뿐이지, 사실은 내장이 먼저 땀을 흘린 것이다. 내장이 과도하게 일을 해도 지치지 않으면 열은 내어도 땀은 나지 않으나, 이제 좀 약해져서 슬그머니 지칠 때 속 땀이 바깥 손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장에 부담이 많은 사람은 소화 활동으로 열을 뱌다가 지쳐 식었다 할 때 땀이 많이 나게 된다. 또한 지나친 신경활동으로도 땀이 난다. 평소에도 긴장과 흥분, 당황할 때 손에 땀이 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흔히 쓰는 "손에 땀을 쥐는"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따라서 한의사들은 손의 차고 더운 것을 통해 신경도 보고 위장도 보고 체력도 참고하게 되는 것이다.

삼담한의원 원장 ☎ 02)532-0203

포스코와 유니세프가 이 자리를 채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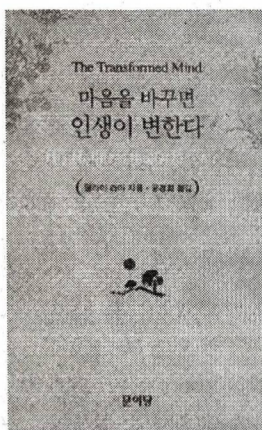
지금도 세상 어느 곳
아이들이 뛰노는 자리에는 돌들 많은 실태래,
찌그러진 강동, 바람빠진 낡은 공들이 있을지 모르립니다.
모양이야 어떻든 그 자리는 바로 희망의 자리 -
축구는 아이들을 또다른 세상과 만나게 해주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유니세프와 함께
세계 분쟁지역과 오지 어린이들에게
축구 시합을 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유니세프와 인도, 북한,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르완다, 예멘 등 10개국 30개
지역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

함께 읽는 佛書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변한다



이 책은 달라이 라마의 설법을 모두 여섯 개의 장에 담고 있다. △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방법, 윤회의 고통과 공(空)을 깨달아 행복에 이르는 여정 △ 자비와 비폭력으로 개인과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잘 살고 잘 죽는 법, 무한한 애타심인 보리심을 얻어 깨달음을 이르기 위한 영적 수행의 길 △ 이러한 보리심을 키우기 위해 이해해야 할 두 가지 진리(二諦)와 네 가지 숭고한 진리(四聖諦)에 대한 법문으로 요약된다.

불교를 전혀 접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친절하고 자상하게 강된 달라이 라마의 설법 내용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 특히, 각 장의 끝에 법문을 들은 신도들과 달라이 라마가 나눈 문답 내용도 실고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의 고견을 함께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마지막 장에는, 고(故) 예세와 함께 투시타 대승 명상 센터를 세운 튜턴 초파 린포체 스님의 소개글이 실려 있다. 여기서 그는, 티베트에 전파된 불교는 위로는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 전수된 순수한 정통 불교이며, 오늘날에도 달라이 라마 같은 위대한 스님들의 정신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달라이 라마는 불교 수행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닦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실천 방법으로 여덟 개의 시로 이루어진 '마음을 바꾸는 발원문'을 암송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 발원문은 부정적인 마음을 바꾸거나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힘든 일상생활에서도 자비심과 애타심을 견지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신 수련을 하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짐에 따라 몸도 건강해지므로, 마음을 닦는 기술이나 방법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특히 강조해 말한다.

달라이 라마는 타인을 돕거나 적어도 남을 해치는 것을 삼가라는 것이 불법의 진수라고 전한다. 그런데 이렇듯 비폭력, 애타심을 실천하는 삶에 참여하는 이유가, 모든 만물이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상호 의존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각 개개인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것은 타자의 노력 덕분이라는 '상호 의존 원리' 즉 '연기론(緣起論)'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넓어짐과 동시에 친절과 동정심이 커지고 분노와 증오를 줄일 수 있다고 역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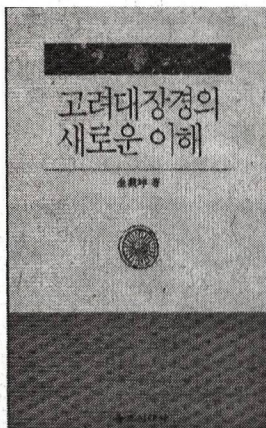
공경희 옮김/ 신국판 변형 양장본/ 248쪽

선방이야기 토굴이야기

출가 후 줄곧 참선 수행에 정진해온 능인 스님의 <선방이야기 토굴이야기>는 여러 스님들이 모여 함께 정진하는 선방과 홀로 정진하는 스님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선방에는 승법에 따라 차례를 정하는 질서가 있고 보름마다 계본을 독송하고 지대방에 둘러 앉아 차를 마시며 나누는 한담이 있

으며, 토방에는 솔바람에 낮잠을 자는 여유와 오솔 길을 거니는 한가로움 그리고 긴 밤새우는 정진이 있다는 스님. 스님의 10여년 간의 수행담과 일상생활 이야기를 읽다보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과 어울리는 수행자의 삶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된다. 능인스님 저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는 고려민중의 불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결정체인 고려대장경을 분석한 연구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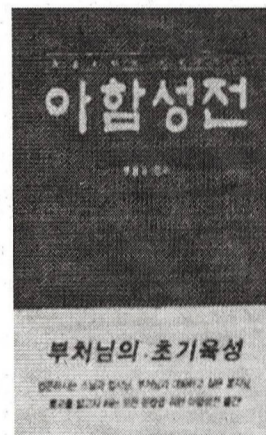
하지만 고려대장경의 내용을 연구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강화경관 고려대장경'에 각인된 보시자와 각수(刻手)의 이름을 통해 당시 이름을 통해 당시 시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책을 통해 우리는 대장경 조성 시기에 살았던 3,6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고려대장경 조성 명목집>을 냈던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강화경관 고려대장경이 지닌 가치는 단순히 박제된 문화재가 아니라 당시 고려 민중의 불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결정체"라고 말한다.

1편에서는 고려대장경의 체제와 조성기구에 대해 간단히 살피고 2편에서는 고려대장경 조성 참여 형태와 참여계층에 대해 분석한다. 3편은 고려대장경 조성의 사례분석을 실고 있다.

지은이는 "나라가 수난에 처했을 때 현실참여의 결과로 조성된 고려대장경은 당시 사원 중심의 불교 세력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민족정신이 응결된 대작사였다"며 "민족분단이라는 오늘날 현실에서 고려대장경의 정신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불교중흥을 위해 애쓰는 근현대 선각자의 사상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계승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김윤근지음

쉽고 매끄러운 부처님 말씀



[아함의 성전은 부처님의 초기 설법을 집대성한 '아함경'을 재구성한 책이다.

남전 5니카야와 북전 4아함을 재구성해 존재의 법칙에 관한 경전군, 인간의 분석에 관한 경전군, 인간의 감각에 관한 경전군, 실천의 방법에 관한 경전군, 시가 있는 경전군 등 다섯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아함경의 서술방식은 단순 소박하면서도 간결하다.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높은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각각 다루고 있는 주제별로 나누어 쉬운 단어와 매끄러운 문장으로 전달하고 있다.

스님과 학자 법사들은 범문자로 일반인들은 삶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조용길 편저/해조음출판사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밀고

~반야심경편 제10화~ 글:그림/정수일

"공"이란 보이진 않아도 존재를 초월하여 온 우주에 존재하는 힘이라고 설명드렸습디만 100%만족할 만한 설명은 아닙니다.

원 말인지...??

근데 왜 대성사님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설명 하세요?

하지만 말이나 글로 표현 하지 않으면 뭘로 하지요?

바로 그겁니다. 의사 전달을 위해선 도리 없이 "아무것도 쓰지 마시오"라는 말을 쓰게 되는것입니다.

이 곳에 아무것도 쓰지 마시오

헛, 그러면서 글을 쓰시네?

깨끗하게 페인트를 칠했으니 아무도 이곳에 낙서를 안했음 좋겠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공(空)은 골인(goal in)이다!

헹 헹 헹...

goal in 을 잘 하려면 공을 잘 다뤄야 하기 때문에 공은 골인이 아닐까요? 헹헹...

자, 지금껏 배운것을 정리해볼까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건오온 개공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 관자재보살님께서 지극한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을 하실때 오온이 다 공함을 간파하시고 모든 괴로움을 벗어났다~ 라는 뜻입니다.

대 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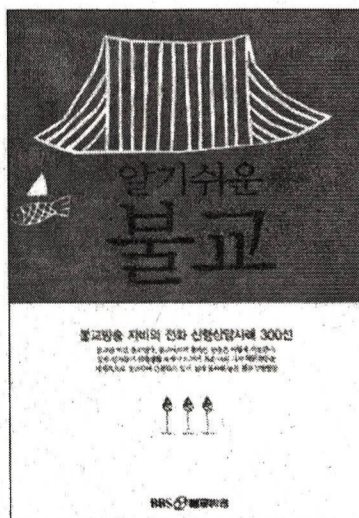
하하하... 떡입술 각자님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축구 선수가 골인의 맛을 체험하려면 공과 선수가 하나가 되어야 하듯 공의 맛을 체험하려면 공과 내(수행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요~ 하하하...

앗! 히딩크 선생~!

하하하~ 붉은악마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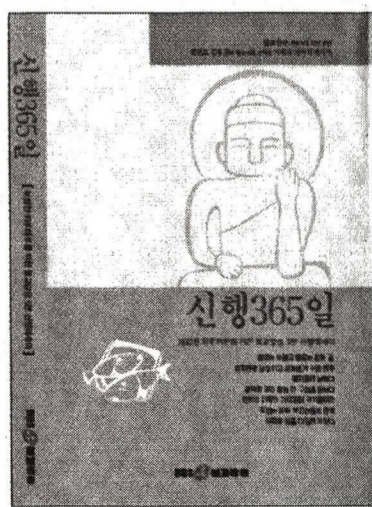
불교방송 자비의전화
신행상담사례 300선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불교에서의 올바른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가 일반 불자들이 신생활 속에서 느끼기 쉬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간결하고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불교신행입문서

신국판 344쪽/값 10,000원
초판 22쇄 발행

보람찬 하루를 위한
불교방송 5분 신행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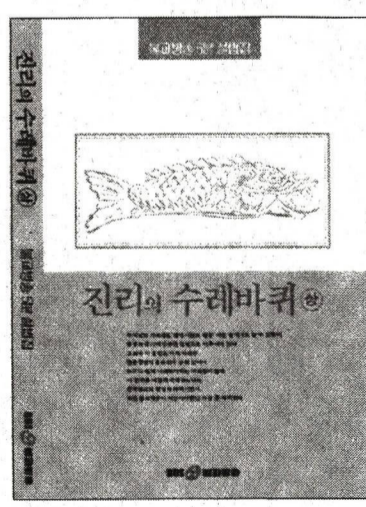


불교방송 개국이후 10년 동안 텔런트 김용림의 목소리로 전해준 지혜와 자비의 메시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든 길, 자칫하면 넘어지고 상처받기 쉬운 하루, 불자들은 날마다 짙막한 경건 말씀 한 구절을 듣는다.

신국판 399쪽/값 10,000원
초판 3쇄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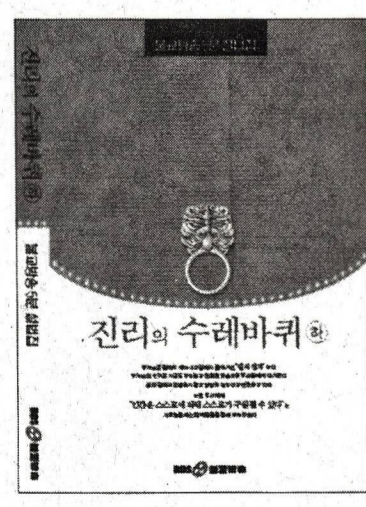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해주는 서른 다섯 스님의 법문



각형 대운 덕진 명선 무비 법등 법성 법장 법진 설봉 성열 성타 송강 송산 송암 시명 운곡 월운 이두 일만 정견 정안 정우 제원 중훈 지거 지안 지원 지현 정화 현근 현능 현성 혜담 혜봉 (가나다 순)

신국판 336쪽/값 10,000원
초판 5쇄 발행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해주는 서른 다섯 스님의 법문



각형 경암 대운 도해 돈원 동봉 마성 법산 법원 벽파 삼중 선일 선혜 성업 성운 암도 여연 영담 오연 원명 자유 정락 정인 중하 중후 지광 지명 지묵 지원 지홍 철우 태호 현각 혜관 혜은 (가나다 순)

신국판 336쪽/값 10,000원
초판 2쇄 발행

자연·수행·문화환경 파괴 금지

북한산 국립공원 파괴 규탄 범불교도대회



자연환경 보호와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위원장 성타스님)는 '북한산국립공원 파괴 행위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지난 6월 26일 오후 2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지하스님, 수덕사주지 법장스님,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스님 등이 참석하였으며, 문정현신부, 고은, 김홍국, 김용수, 조계종포교사단 김대중단장 등도 함께 했다.

범불교도대회 추진위원회(위원장 성타스님)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는 '북한산을 살려주세요'라는 어린이들의 환경동요, 경과보고, 총무원장 정대스님(총무부장 대목)의 격려사, 문정현신부와 범등스님의 규탄사, 김용수(아름다운 나라의 기동 대표)와 김홍국(방송인) 불자의 LG불매 운동선언, 고은(시인)선생님의 시 낭송, 정부 및 국회 촉구문 발표와 북한산살리기 불교환경수호단발족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대중은 북한산 국립공원 관

통노선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와 관련단체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노선검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였고 자연, 수행, 문화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건설교통부장관과 건설사의 기만적인 약속 파기행위를 규탄하였다.

참석대중은 대정부 촉구문을 통해 '북한산 32개 사찰의 수행환경을 유린하는 불교말살적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김대중정부는 허언으로 불교계를 기만한 건설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대국회 촉구문에서는 '노선 결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친환경적 정책방향으로 일대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하였다.

북한산 회룡사 종호스님 등 비구니스님 6명은 단상으로 올라와 '북한산국립공원 수호', '불교탄압 중단', '환경수호' 등의 현서를 쓰고

불교계 대북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

남북불교 교류 신뢰에 문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가 대북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대북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종단협은 이 달 안에 실시해야 할 북한 어린이 급식지원예산 2억4천1백만원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26개 종단 가운데 대북지원 분담액을 완납한 곳은 군소종단을 중심으로 한 13개 종단에 불과하다.

종단협은 6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의 일이며 현 종단의 현안이다. 수행정진도량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범불교도대회가 끝난후 참석한 사부대중은 인사등을 거쳐 종로의 종묘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북한산 국립공원 살리기 홍보를 하였으며, 오후 5시 종묘에서 불교도대회를 정리하였다.

이번 범불교도 대회를 통해 전 불교도가 환경운동에 대한 한목소리와 각 종단의 환경운동 연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 같다.

불교계 대북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

남북불교 교류 신뢰에 문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가 대북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대북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종단협은 이 달 안에 실시해야 할 북한 어린이 급식지원예산 2억4천1백만원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26개 종단 가운데 대북지원 분담액을 완납한 곳은 군소종단을 중심으로 한 13개 종단에 불과하다.

종단협은 6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단협의회 명으로 공동지원이 불가능하여 각 종단별로 지원할 수 밖에 없다며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와의 약속과 복과의 신뢰를 생각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자비의 말씀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열심히 일한 그대 '나'를 찾아 떠나라

풍경소리의 자비의 말씀 계시관 글 가운데 정진권 한국체대 명예교수의 '한 생각 바꿨더니'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등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어실은 "한 생각 바꿨더니"가 초등학교 학생에게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가르침을 담고 있어 교과서에 등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필가 정진권의 '한 생각 바꿨더니'는 소나무와 진달래의 대화를 통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자만 정부와의 약속과 복과의 신뢰를 생각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원을 전하는 모임인 풍경소리(대표이사 성운)는 99년 9월창립되어 전국 지하철도 건설에 1천6백개를 설치해 두달에 세 번 계시관을 교환해 지하철도 철도를 이용하는 바쁜 도시민들의 마음에 여유와 따뜻한 마음을 찾아줄 수 있는 시인 수필가 등의 글로 구성되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비의 말씀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열심히 일한 그대 '나'를 찾아 떠나라

풍경소리의 자비의 말씀 계시관 글 가운데 정진권 한국체대 명예교수의 '한 생각 바꿨더니'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등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어실은 "한 생각 바꿨더니"가 초등학교 학생에게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가르침을 담고 있어 교과서에 등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필가 정진권의 '한 생각 바꿨더니'는 소나무와 진달래의 대화를 통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광역단체장 불자 4명 당선

6·13 지방선거 결과



6·13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불자 13명 가운데 부산광역시 안상영(한나라당), 전남도지사 박태영(민주당), 강원도지사 김진선(한나라당), 제주도지사 우근민(민주당)후보 등 4명이 각각 당선됐다. 안상영 당선자는 금정산 범어사를 관동하는 고속철도에 대한 반대시위를 표명했으며 한국불교자원봉사단을 창립등 지역불심을 추스르는데 노력을 하였다.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설악산 오대산등 명산과 신홍사 월정사등 전통사찰의 보존과 불교문화재 보호정책을 내놓았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신규법 후보와 경합 끝에 재선 되었으며 불교 관련 문제에 항상 적극적인 지원을 해 왔음을 강조하고 "제주 지역의 여러 종교 성지들을 보수 및 성역화 하여 주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제주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정책을 제시하였다 박태영 전남도지사는 호남지역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는 불교문화재 보존방안에 대한 행정집행력을 기대해 불만이다.

또한 (부모은종경)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경기 우호태 화성시장과 성무용 천안시장 및 경철정청불교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천서령 후보도 경남 합양군수로 당선되는등 많은 불자후보들이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 당선돼 불교계와 관련된 문화 정책의 실현에 일조할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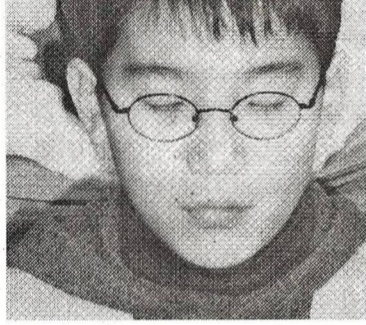
여성인권 깃발은 공권력 오남용 근절을 위한 대책위

여성인권 종교계가 앞장 선다



지난 2월 18일 송추 원각사에서 북한산 관동터널 반대 농성 중이던 비구니스님들을 건설회사 직원들이 폭행하여 전치4주 이상의 상처를 입은 사건이 진행되던 2시간 동안 경철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규명만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에 대해 수치심을 주는 알몸수색을 강행했고, 4월 19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 대표가 경



여름 휴가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어디로 떠날까 망설여지는 시기다. 번잡한 일상을 벗어 던지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다면 산사의 여름수련회(단기휴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다.

프로그램들은 대개 여름방학기간에 수요가 몰려, 맘에 드는 것을 고려하면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사찰의 경우 여름휴가를 단기휴가 수련회로 대신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매년 모집인원의 2~3배가 초과하는 곳이 많다. 특히 삼보사찰(해인사, 송광사, 통도사)에서는 신청자가 많아 입학시험처럼 서류전형에 통과해야 한다.

사찰 수련회는 초심자의 경우 발우공양, 결가부좌의 좌선, 예불 등이 육체적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전남 해남 대둔사 '주말 열린 수련회-해박숲길' 프로그램이 안성맞춤

여름 휴가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휴가철 산사 단기 출가 프로그램 다양

불자는 물론 일반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산사체험 위주로 짜여진 것이 특징이다. 좌선, 108배 등 육체적으로 힘든 프로그램은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대신 숲길 산책, 수행일기 작성, 스님과의 대화, 다도 등으로 고즈넉한 산사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테마별 수련회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성 용주사의 경우 효(孝)를 주제로 한 수련회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경주 골굴사는 선무도 수련을 통한 자성 깨치기로 한 여름의 더위를 식힌다. 전남 해남 미황사에서선 초등 4~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문학당을 운영한다.

불교종지종 여름 수련회도 지리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2박 3일 동안 문화 체험 수련회로 열린다.

농촌살리기 1백인 100일 걷기

불교계 및 시민, 환경단체들이 '1백인 1백일 걷기 운동'을 통해 농산물 수입과 쌀값 폭락등으로 고통받는 농촌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등 54개 불교 시민 환경단체는 오는 7월1일 54개 도시를 순회하는 국토답사를 실시한다.

'1백인 1백일 걷기 운동'은 농산물 수입 개방 이후 어려움에 처한 농촌 경제를 살리고 쌀 수입 개방을 지지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이정호 사무처장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의 추가 개방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보상지불제의 확대실시와 농업협동조합 개혁을 통해 유전자조작산물(GMO)등으로부터 농촌과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장기기증 신청 방법

- 02)734-8050으로 전화상담 > 신청서류접수 > 등록
- www.lisa.or.kr 접속 > 인터넷등록
- 종로구 견지동 74-8 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 및 등록

www.lisa.or.kr

뇌사시 장기기증

뇌사 상태에 처한 사람의 장기(심장, 신장, 간장, 폐장, 각막 등)를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사상태는 자발호흡이 불가능하고 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흔히 혼동하는 식물인간과는 다릅니다. 뇌사판정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3인 이상의 전문의가 판단합니다. 뇌사자 본인이 생전 장기기증을 서약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동의할 시에 병원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집니다.

사후 각막기증 기증이란 주로 시신경 기능을 살아있으나 각막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 자에게 시술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한지 6시간이 안된 시신의 각막을 적출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이식하면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각막기증은 색맹, 근시, 난시와도 상관이 없으며 80세까지도 기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후 6시간 이내에 빠른 연락을 해야만 각막이식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사후 시신기증 각 의과대학에서는 해부용 시신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 시신기증이란 의학 발전을 위해 죽은 후 자신의 몸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것입니다. 의학 발전은 병마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줍니다. 즉, 사후 시신기증은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커다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생전 골수기증 기증은 백혈병이나 골수이식이 필요한 각종 암환자에게 새생명을 주는 고귀한 나눔의 골수기증은 만 35세 이하인 분으로 건강한 분이어야 하며, 헌혈을 한 번 정도 경험에 있어야 합니다. 골수기증은 골반뼈에서 골수액을 채취하며, 약 2일 정도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동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생전 신장기증 주변에는 만성신부전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신장 2개 중 하나를 환자에게 기증하는 것입니다. 신장기증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체 조직이 일치해야 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생전에 하는 기증이기 때문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동의도 필수적입니다.

환자 지원 및 후원 접수 나눔실천회는 접수된 후원금을 백혈병이나 신부전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소판 헌혈과 헌혈증도 함께 지원합니다. 아울러 생명나눔실천회가 주최가 되는 각종 캠페인과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지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과 지원봉사는 삶과 생명 나누기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사원탐방은 종도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원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원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옴마니반메훔 진인공덕 가득한 수계사

부처님의 진리가 아름답게 밝혀놓은 고을 경주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이다. 수계사를 찾는 날도 그러했다. 가는 곳마다 붉은 물결을 이루고 붉은 옷을 입은 응원단의 모습은 경주도 여전했다.

경주의 거리마다 붉은악마의 옷을 입은 남녀노소의 모습은 월드컵의 열기를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내에게 경주는 이상하리 만치 고향처럼 느껴진다. 아마도 경주가 통일신라시대에 찬란하게 꽃피었던 불교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이 한몫을 하여서 그럴 것이다.

멀리 남산을 뒤로하고 경주의 형상강을 지나 동국대를 옆으로 한참을 가니 멀리 작은 초등학교가 눈에 띈다.

택시에서 내려 한참을 초등학교 구경을 하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한가로움과 가슴속 깊숙한곳에서 아려오는 추억에 한번 취해보기도 했다. 운동장 끝에는 시골학교 어디에서 볼수 있듯이 오래된 느티나무 한그루와 그옆에 시소 그리고 그네 철봉...

초등학교의 정겨움은 도시속에서 잊고 살아왔던 삭막한 감정을 일거에 씻겨어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잠시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목적을 잊게도 하였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동요 노래소리에 잠시 동인의 동심의 여행을 끝을 맺었다.

작은 초등학교를 뒤로하고 마을 한가운데 수계사가 있었다. 사원의 위치가 예사롭지 않았다. 작은 마을 가운데 위치한 수계사는 마치 마을의 중심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었다. 부처님의 정기가 마을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라고나 할까.

내가 예상했던 수계사의 모습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우선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원의 법새가 흠뻑나는 그러면서도 아담하고 조용한 사원이라는 예상은 적중했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예감이 그러했다.

발췌부터 아담한 사원은 보살님들의 소리에 들쭉인다. 점심시간이 한참을 지났는데도 혜산스승님, 인주화스승님과 보살님들은 점심도 하지 않고 나를 반겨주셨다.

우리의 인심이 그러했던가. 손님을 맞이하려고 아침부터 집안을 청소하고 마당을 쓸고하는 부산을 띠는 모습이 도심사원에서 느껴보지 못한 정겨움이 가득하다. 두 스승님의 수행의 모습과 삶의 자세가 그대로 느껴졌다.

본존에 향ুল리고 참배를 마치고 사택으로 들어섰다. 혜산스승님은 마당의 작은 텃밭을 손질하고 있

는 중이고 전수님은 공양간에서 보살님과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다.

동기간에 우애하고 집안간에 윤리를 세워야 한다는 스승님의 가르침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가운데서 보이듯이 스승님은 화합과 조화를 유난히 강조하신다. "화합과 조화는下心에서 시작됩니다.下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대지대비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겸손한 마음은 수행자의 제일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남이하면 분통이고 내가 하면 로벤스라는, 즉 좋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은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쁘고 싫고 더러운 것은 모두 내것이 아닌 남의것으로 돌리는 이 기심과 분별의 마음은 수행자가 버려야 할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별심을 지혜를 가리고 욕심을 자아내는 마음의 장막으로 간주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분별심은 해탈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선입관과 편견, 이기심과 고리인 일체만물에 대한 분별심부터 버려야 합니다"고 혜산스승님의 긴 설명이 이어졌다. 스승님의 말씀에는 나지막하고 운유하지만 수행자의 큰 힘이 느껴졌다.

"모든 범부는 이름과 모양에 집착하고 그것에 따라 일어나는 법을 따르며, 갖가지 모양을 보고 나와 내 것이라는 그릇된 견해에 떨어져 모든 존재에 집착하고 무명(無明)의 어둠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탐심을 일으키고 성냄과 어리석은 업을 짓고 있다. 누에가 고치를 짓듯이 분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몸



총기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마친후 수계사 교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기간에 우애하고 집안간에 윤리를 세워야 한다 노 스승님의 눈가에는 오직 중단 발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오늘도 중생교화에 모범을 보이시고 계시다.

을 잃어 육도(六道)의 큰 바다에 떨어짐을 알지 못하니 이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중생들은 나와 내 것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의 인용은 아직까지 마음속 깊이 남아 있다.

"만약 우리 중단과 승단이 화합하고 질서를 지키며 수행을 가로막고 있는 분별심과 이기심의 마장을 이겨내는 금강같은 수행과 하심과 초발심의 자세를 잊지 않는 수행자의 상을 세운다면 중단의 교도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선배스승들은 중단의 초석을 다졌고 그 초석위에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은 후배스승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며 중단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셨다. 스승님의 중단에 대한 애정은 총지종 창종에서 아니 그 이전부터다.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집안의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시작된다. 스승님의 누님들이 모두 진각종에서 진언을 접하였기 때문이다. 스승님의 인생에 있어서 원정대성사님의 만남은 삶의 진로가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스승님은 총지종의 창종에 원정대성사님과

한 인과번칙의 가르침은 아직도 두 스승님의 가슴에 절절히 남아있다고 한다. 또한 열반스승님인 묘희스승님을 12년간 옆에서 보살피고 시봉한 일화는 유명하다. 개인화 되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지고 있는 세대에서 어른에 수순한 모습은 스승님의 실천 수행과 진언행자의 참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점심공양을 마치고 수계사 신정회장 이상순(임정심보살), 부회장 이석주, 총무 윤문보 보살, 이위정 보살과 함께 후식을 같이한 자리에서 스승님에 대한 보살님들의 자랑이 시작되었다.

"스승님들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분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높고 낮음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곁에서 수년간 모셔보았지만 처음 본 그대로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한결같습니다." 스승님이 화내는 모습과 언행을 보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온화한 모습 항상 평안하게 우리들을 대해주십니다.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스승님은 저의 어머니보다 더욱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보살들의 어려움이 마치 자기의 일인양 진정된 마음으로 대해 줄 때는 정말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며 눈물을 글썽이신다. 스승에 대한 교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수계사의 모습은 혼돈했다.

수계사 보살님들의 스승자랑이 시작되자 두 스승은 몸 둘바 모르듯이 미적미적 웃음을 지으면서 "스승이 훌륭하고 덕높아 많은 보살과 교도들이 모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스승은 보살과 교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미약하고 누구에게 내세울것이 없는 미약한 중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도님들과 보살님들이 혹은 채찍질도 하고 혹은 격려와 힘이 있었기에 그나마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작은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며 모든 공덕을 교도들과 보살님들의 은덕으로 돌렸다.

한참의 덕담이 오고갔다. 보살은 존경심으로 스승님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남의 탓만하고 남을 깎아 내리는 요즘세대에 부처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서로를 위하는 마음, 서로를 존경하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따뜻한 수계사의 모습을 모범정답일 듯 하다. 경주를 떠나는 마음 가볍고 따뜻한 사랑 한가득 담아 왔다.

혜산 스승님과 안주화 스승님의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 그리고 어른에 대한 공경과 수순한 실천행은 남다르다.

밀교의 진언을 접한 시간은 오래 되었으나 스승님은 늦게 중생교화의 길을 걸었다. 여러 이유가 있었으나 스승님은 부처님의 법을 교화하는데 더욱 매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

을 만들려고 늦게 스승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중생교화의 길에서 한번도 부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수행의 길을 걸었으며 후배와 교도들에게 귀감을 보여준다.

특히 시각화 전수님의 도움과 법장화 스승님 그리고 복지화 스승님의 가르침은 잊혀지지 않는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연기(緣起)의 진리 즉 사물과 인간관계가 연관하여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평범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수계사 의도

영랑방면 ● 하루리마을회관

● 수계사

● 인강방면

● 포항방면

주교 안주화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하루리 1115 ☎ (0561)745-5207

현 특정종령님과 힘을 같이 하여 이땅에 정통밀교의 깃발을 올렸던 것이다. 그런 이유였을까?

스승님은 총지종 단발전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이신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중단과 승단에 대한 애뜻한 정이 녹아있다.

"승단의 스승님들도 중생이라 때로는 진리에 어긋나는 행위도 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런 실수를 보여 비난하거나 험담만 한다면 그것 또한 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진리에 맞는 실천수행만이 올바른 길입니다"

스승님의 실천관과 수행관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다.

혜산 스승님과 안주화 스승님의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 그리고 어른에 대한 공경과 수순한 실천행은 남다르다.

밀교의 진언을 접한 시간은 오래 되었으나 스승님은 늦게 중생교화의 길을 걸었다. 여러 이유가 있었으나 스승님은 부처님의 법을 교화하는데 더욱 매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

을 만들려고 늦게 스승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중생교화의 길에서 한번도 부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수행의 길을 걸었으며 후배와 교도들에게 귀감을 보여준다.

특히 시각화 전수님의 도움과 법장화 스승님 그리고 복지화 스승님의 가르침은 잊혀지지 않는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연기(緣起)의 진리 즉 사물과 인간관계가 연관하여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평범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인과번칙의 가르침은 아직도 두 스승님의 가슴에 절절히 남아있다고 한다.

또한 열반스승님인 묘희스승님을 12년간 옆에서 보살피고 시봉한 일화는 유명하다. 개인화 되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지고 있는 세대에서 어

른에 수순한 모습은 스승님의 실천 수행과 진언행자의 참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점심공양을 마치고 수계사 신정회장 이상순(임정심보살), 부회장 이석주, 총무 윤문보 보살, 이위정 보살과 함께 후식을 같이한 자리에서 스승님에 대한 보살님들의 자랑이 시작되었다.

"스승님들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분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높고 낮음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곁에서 수년간 모셔보았지만 처음 본 그대로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한결같습니다." 스승님이 화내는 모습과 언행을 보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온화한 모습 항상 평안하게 우리들을 대해주십니다.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스승님은 저의 어머니보다 더욱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보살들의 어려움이 마치 자기의 일인양 진정된 마음으로 대해 줄 때는 정말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며 눈물을 글썽이신다. 스승에 대한 교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수계사의 모습은 혼돈했다.

수계사 보살님들의 스승자랑이 시작되자 두 스승은 몸 둘바 모르듯이 미적미적 웃음을 지으면서 "스승이 훌륭하고 덕높아 많은 보살과 교도들이 모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스승은 보살과 교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미약하고 누구에게 내세울것이 없는 미약한 중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도님들과 보살님들이 혹은 채찍질도 하고 혹은 격려와 힘이 있었기에 그나마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작은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며 모든 공덕을 교도들과 보살님들의 은덕으로 돌렸다.

한참의 덕담이 오고갔다. 보살은 존경심으로 스승님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남의 탓만하고 남을 깎아 내리는 요즘세대에 부처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서로를 위하는 마음, 서로를 존경하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따뜻한 수계사의 모습을 모범정답일 듯 하다. 경주를 떠나는 마음 가볍고 따뜻한 사랑 한가득 담아 왔다.

인과번칙의 가르침은 아직도 두 스승님의 가슴에 절절히 남아있다고 한다.

또한 열반스승님인 묘희스승님을 12년간 옆에서 보살피고 시봉한 일화는 유명하다. 개인화 되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지고 있는 세대에서 어

른에 수순한 모습은 스승님의 실천 수행과 진언행자의 참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점심공양을 마치고 수계사 신정회장 이상순(임정심보살), 부회장 이석주, 총무 윤문보 보살, 이위정 보살과 함께 후식을 같이한 자리에서 스승님에 대한 보살님들의 자랑이 시작되었다.

"스승님들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분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높고 낮음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곁에서 수년간 모셔보았지만 처음 본 그대로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한결같습니다." 스승님이 화내는 모습과 언행을 보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온화한 모습 항상 평안하게 우리들을 대해주십니다.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스승님은 저의 어머니보다 더욱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보살들의 어려움이 마치 자기의 일인양 진정된 마음으로 대해 줄 때는 정말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며 눈물을 글썽이신다. 스승에 대한 교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수계사의 모습은 혼돈했다.

수계사 보살님들의 스승자랑이 시작되자 두 스승은 몸 둘바 모르듯이 미적미적 웃음을 지으면서 "스승이 훌륭하고 덕높아 많은 보살과 교도들이 모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스승은 보살과 교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미약하고 누구에게 내세울것이 없는 미약한 중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도님들과 보살님들이 혹은 채찍질도 하고 혹은 격려와 힘이 있었기에 그나마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작은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며 모든 공덕을 교도들과 보살님들의 은덕으로 돌렸다.

한참의 덕담이 오고갔다. 보살은 존경심으로 스승님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남의 탓만하고 남을 깎아 내리는 요즘세대에 부처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서로를 위하는 마음, 서로를 존경하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따뜻한 수계사의 모습을 모범정답일 듯 하다. 경주를 떠나는 마음 가볍고 따뜻한 사랑 한가득 담아 왔다.



나의 신행담



저는 수계사에 다니고 있는 이 위조보살(계사생)입니다.

제가 겪었던 작은 수행담을 적어보았습니다. 한사람의 수행담이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 경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할 수 있어서 떨리는 심정으로 옮겨봅니다.

저는 알수 없는 병고에 시달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몸이 시들시들하며 정신이 혼란하여 병원을 찾아 고쳐 불려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만 갔다오면 몸이 더 아프고 갈수록 몸의 고통은 커졌습니다.

무당을 대려다icut하고 현교절에도 다녀보고 용하다는 점쟁이한테도 가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고 몸에 고통은 더해만 갔습니다. 전국에 용하다는 약과 점쟁이 곳을 통해 고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이 병고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유가 없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도 이유가 없고 용하고 좋은 약은 저의 몸을 건강하게 못하였습니다.

그때 인근에 수계사가 있다는 소식을 주위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곳의 스승님에게 의지하여보라는 것이었습니다.

1993년 6월14일 절박한 심정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수계사를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가정의 부처"라는 정사님의 법문이 저의 심장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간단한 법문 한구절이 저의 가슴 깊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참회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대하여 저의 모습이 하나하나 영상물처럼 스쳐지나며 모든 것이 나의 잘못으로 참회가 되었습니다.

스승님은 저의 모습을 보고 "지심으로 불공을 해보라"는 권유에 절박한 심정과 스승님에게 이끌린 묘한 힘에 진언연승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공을 시작했다고 바로 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욱 악화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오직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육자진언과 과거의 모습을 참회하는 불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6월 유난히 무더운 여름날 몸이 너무 나빠 집에 가지도 못하고 사원에서 스승님과 같이 먹고 자면서 지심 불공을 하였습니다. 저녁이면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때 전수님은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며 저와 함께 하였습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어린 아이처럼 안아 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염승해 주시는 전수님은 저의 어머니보다 더욱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척 더운 여름날, 스승님은 부처님 법으로 나를 안아 주시고

하루 공식시간 외에도 3시간씩 열심히 서원당에서 스승님과 함께 용맹정진하였습니다.

그러저럭 일주일이 가고 2주가 되니 그동안 두려움과 아픔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조금씩 없어지고 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며 몸에 이상한 기운과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련이 왜 저한테만 있는지 부처님과 모든 것에 원망을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인과의 법칙을 부정하고 업을 부정

하고 참회하지 아니하고 원인을 나 아닌 다른것에만 전가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스승님께서 저보고 더 용맹정진 하고 지심으로 참회하고 육자진언의 염불과 불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죽비를 들고 저의 어깨를 치면서 저의 정진을 굳건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꼭 믿고 정진하면 된다"고 하시던 스승님의 말씀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가 다르게 몸도 좋아지고 건강해 졌습니다. 거짓처럼 아픔도 없어지고 정신적인 혼란함도 없어지고 너무 평온하고 너무 안락하게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총지종이 없었으면 아니 부처님이 없었으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이 없었으면, 또 저의 곁에서 항상 인자하고 인정 많으신 정사, 전수 두 스승님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도 고통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했던 것이 과거 전생에 지은 업과 인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계사에서는 저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여러 보살님이 모두 해탈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완고하시던 저의 시어머니께서 지금은 열심히 불공하시고, 참회하고 진언연승을 가까이 합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사원 수계사지만 부처님의 큰 광명이 있고 인자하신 우리 정사님과 전수님을 모시고 오늘도 끊임없는 용맹정진으로 수계사 교도들은 오늘도 서원당을 향합니다.